



최희섭 KIA행 종로 배경은 '협상 결렬' 아니면 '막판 압박'

KIA 타이거즈가 최희섭(28·탑파베이)의 영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고심 속 ML 잔류쪽 선회?

이적 조건 등 최후 카드?

나도 모르는 사실이다. 메이저리그에도 나를 원하는 팀이 있다... KIA는 최희섭에게 LG 봉준근(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5천만원)이 국내에 복귀할 때와 비슷한 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승엽 8호 홈런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8일 오후 고시엔 고장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전에서 1-0으로 앞서던 3회 2사 1루에서 한신 선발 투수 에스테반 안의 가운데 포크볼(128km)을 잡아 당겨 우측 펜스를 까마득히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 신지애



▲ 최나연

신지애 “고향서 시즌 2승 해야죠”

KLPGA KB스타투어 내일 함평서 개막

박희영·최나연·안선주 등 정상급 총출동

신지애(19·하이마트)가 고향에서 시즌 2승을 노린다. 국내 여자프로골프 1인자인 신지애는 오는 10~12일 4개월 양간디 골프장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2007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에서 시즌 2승과 더불어 고향에서 첫승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다.

Weather forecast table for the tournament days: 10(Mon), 11(Tue), 12(Wed). Includes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nd temperature ranges.

신지애와 함께 우승을 다룰 선수로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양강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박희영(20·이수건설), 박희영은 지난해 상급랭킹, 최우수선수 포인트를 주요 부문에서 신지애와 1.2위를 다툰 맞수로 이번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다. 박희영은 올 해 웨닉스파크 클래식 2위, MBC 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에서 5위에 그쳐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시즌 첫승을 노리고 있다.

“합평다이너스티로 오세요”

화려한 샷의 향연...생생한 '현장 레슨'

스타투어 2차 대회에는 한국여자프로 톱클래스 선수들이 총출동해 광주·전남지역 골프팬들은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선수들의 화려한 샷의 향연을 직접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갤러리들은 남자 주말골퍼와 비슷한 여자선수들의 드라이버 샷을 비탄 정교한 아이언샷, 섬세한 퍼팅, 코스 공략법 등 생생한 현장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별로 선수 구성이 특색을 이루고 있어 갤러리들은 어느 조를 중심으로 관전을 할 것인지 오히려 즐거운 고민을 해야할 지경이다.



▲ 박희영



▼ 안선주



우승 물꼬 튼 한국여자골퍼들 “내친김에 연습 가자”

시즌 여덟번째 대회 만에 우승 물꼬를 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안 스타투어'가 내친 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시즌 첫 우승을 일궈낸 김미현(30·KTF) 등 한국 선수 37명은 10일(한국시간) 오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골프장 리버코스(파71·6천306야드)에서 개막될 미켈름 울트라오픈에 출전한다.

LPGA 미켈름 오픈 내일 개막

박세리·박지은 등 37명 출전

가장 가슴이 설레는 선수는 '예비 명예의 전당 회원' 박세리(30·CJ)다. 박세리는 지난 2004년 이 대회를 제패하면서 입회에 필요한 포인트를 채웠다. 올해 가을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 박세리는 동갑 김미현의 시즌 첫 우승에 이 대회 정상 탈환으로 화답하고 명예의 전당 '등록'을 자축하겠다는 다짐이다. 박세리는 지난해에도 김미현이 먼저 우승을 차지하자 "나도 해내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박세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이 벌어졌던 블랙스버그는 대회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우즈 독주 계속 될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내일 개막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2007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독주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우즈와 이를 저지할 골프 명인들의 환관 대결이 10일(이하 한국시간) 밤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의 총상금(우승상금 144만달러)이 걸려 있는 초특급 대회로 출전 선수들의 면면이나 상급 규모가 메이저대회 못지 않아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린다.